

전통공예의 찬란한 美 ‘금은보화전’

6월 2일까지 리움미술관서

삼성리움미술에서 국보급 불상을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리움 미술관은 2013년 첫 전시로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획전 ‘금은보화(金銀寶貨) 한국 전통공예의 미’展을 6월 2일까지 삼성미술관 Leeum 기획전실 블랙박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재료와 최상의 세공 실력을 만들어낸 공예품들의 찬란한 예술성을 조명하는 자리다. 리움 미술관은 “금과 은, 보석으로 만든 공예품을 통해 한국 미술의 화려한 면모를 선보이고자



국보 제 80호 금제여래입상

석굴암 형태 불교 색션 구성

국보 80호 금제여래입상 등 전시

기획한 전시다. 미국 보스턴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내외 주요 박물관에서 대여한 국보 19점, 보물 26점을 비롯한 총 120여점의 한국 전통 공예 명품들을 한 자리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불법의 미, 장엄의 미’라는 주제로 불교 미술 색션을 구성 석굴암 내실 형태로 단장된 전시관을 배치했다. 이곳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80호 금제여래입상(통일신라 692년경, 금)과 호림박물관 소장 보물 1047호

금동 대세지보살 좌상(고려 14세기)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가장 귀하게 여겨진 금과 은을 활용한 기물들을 중심으로 도금, 입사 기법이 가미된 정교함과 더불어 옥, 수정, 유리, 호박 등을 숙련된 기술로 가공한 보석 공예품의 화려함도 새롭게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리움미술관은 영화와 미술과의 영향관계를 조명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재고하는 ‘미장센-연출된 장면들’展도 동시에 개최한다.(02)2014-69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나무 작품 하나에 역사를 담았다

송강 스님 서각 전시회...경인미술관에서

“나무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나무에 가만히 귀기울이면 나무의 바람을 읽습니다(중략) 나무와 사람의 어울림이 무르익을 땐 나무도 사람도 텅비어 버립니다” 송강 스님의 글 중에서

20여년간 서예와 다도로 불심을 전하는 송강 스님(장수 도성암 주지)의 서예 서각 전시회가 4월 17일~23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린다. 2005년 첫 전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스님은 서예·서각·다도찾상 등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산행하며 나무를 찾아다녔다. 스님은 “작품 하나하나가 역사가 있고 삶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2009년부터 월간지(차의 세계)와 월간(불교)에 연재해오던 작품에 새롭게 작업한 문인화 등이 포함됐다. 스님은 “서각과 차탁에 사용한 나무 소재는 관솔, 괴목 등 무늬, 색상 등이 뛰어난 작품”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제방의 스님들과 차인들, 그리고 여러 불자들의 마음을 고요히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063)353-2981



송강 스님의 서각 '茶禪'

정혜숙 기자

불화,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 ‘시도’

김선희 첫개인전 ‘화엄 禪 세계’...4월 19일부터

“지극히 담백한 선화의 세계와 화려하고 찬란한 화엄불화의 세계는 서로 상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담담하게 그리거나 찬란하게 그리는 등 기법적인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림세계라 할 수 있다” (동국대 문명대 명예교수)

“西來의 작품세계는 전통의 미를 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현대적 미를 개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동국대 예술대 김창균 교수)

서래(西來) 김선희 작가의 첫개인전 ‘화엄 禪 세계’가 4월 19~ 25까지 종로구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김선희 작가는 불교회화·전각·수묵화 등 작품 13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그동안 고려불화와 수월관음도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향수를 중심으로 화려한 색채와 선을 표현하고 시대를 넘나들며 현대인의 삶과 경계를 자문하는 작품 세계를 구사해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고려불화 7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도 정면은 바라보며 곁가부좌를 하고 있는 수월관음도는 인상적이다. 관음보살은 오른손을 아랫배에 두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해 연꽃가지를 잡고 있다. 또한 화면 하단 합장하고 있는 통통한 얼굴의 귀여운 선재동자는 이 작품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구법여행을 떠난 선재동자가 수월관음을 만나 법을 구하는 모습은 법을 열망하는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전통고려불화의 형식을 작가 나름의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수월관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있거나 가부좌를 하는 경우는 드물죠. 정병도 보통은 좌측

에 위치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우측에 있으며, 보통 관음보살 뒤편에 그려지는 대나무도 화면 하단 좌우에 기암괴석과 함께 그려 일반적인 고려 수월관음도의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직사각형의 지붕돌 위에 종을 새겨 넣은 전각 작품 ‘과욕정심원(寡欲淸心源)’도 인상적이다. 마산의 한 사찰에서 작가가 직접 구해왔다는 직사각형의 지붕돌위에 종을 새겨 넣고 무릎 꿇고 합장하는 비천상과 오방색의 목어를 그려넣었다.

“과욕정심원 즉 ‘욕심이 적으니 마음이

전각·수묵화·불교회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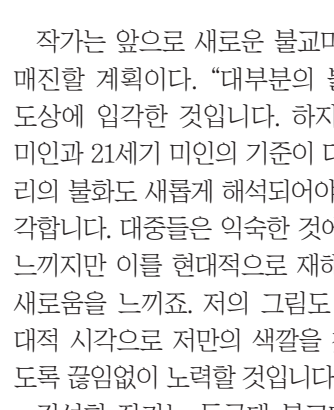
수월관음 향한 선재 동자 주목

깨어있는 목어 전각 등 주목

뿌리에서 맑아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처음 바람이 되는 물을 발견했을 때 너무 예뻐서 거기에 스며들듯이 그림을 그렸어요. 전각기법보다는 비천상을 더 부각 시켰죠. 무릎을 꿇고 있는 비천상은 공양을 올리는 제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목어는 정진을 통해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화로 표현되는 공시리지는 선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허공’ 역시 자연의 표상인 새를 통해 세의 시선과 작가의 시선을 동시에 담으며 선의 세계를 구현해낸다. “새가 바라보는 3차원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새 연꽃 바위 물로 자연을 한 선상에서 놓고 선적인 의미를 부여했죠”

김선희 작가는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김선희 작가의 첫개인전 ‘화엄 禪 세계’가 4월 19~ 25까지 종로구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열린다. ①과욕정심원(寡欲淸心源) ②허공 ③수월관음도

작가는 앞으로 새로운 불교미술 창조에 매진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불교미술은 도상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의 미인과 21세기 미인의 기준이 다르듯이 우리의 불화도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지만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을 때 새로운 느낌을 느끼죠. 저의 그림도 앞으로 현대적 시각으로 저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김선희 작가는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졸업,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에 있다. 1990년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2006년 한국여성미술공모전, 201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서 입상하고, 2006년 일본 동경 동굴고 밝은 빛 전, 팔라우 국제초대전, 2013년 인도 텔리대학교, 몸바이대학교 동굴고 밝은 빛 전 등에 초대작가로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술사 연구소 연구원, 동서미술학회 연구이사, 한국선(禪)미술인회 연구원으로 있다. (02)3673-3426 정혜숙 기자

삶·예술·불교로 풀어나가는 ‘토크쇼’

박범훈 前 중앙대총장 진행 BBS TV ‘추임새’

불교방송 BBS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박범훈 前 중앙대총장이 진행하는 ‘추임새’(연출 김형만, 김경규)가 주목받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SKYLIFE(위성) 410 등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게스트들의 삶과 예술 그리고 불교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토크쇼다.

‘박범훈의 추임새’는 주류미디어들이 놓치고 있는 전통문화가 어떻게 불교와 만나왔으며 함께 어울려 발전해 왔는지 이야기하고자 기획됐다. 연출을 맡은 김형만 PD는 “이 프로그램

은 불교와 시대정신, 불교와 시대문화 사이에 놓인 간극을 없애고 서로가 서로에게 융합되어 다시한번 시대를 이끌어내는 대안문화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취지를 전한다.

이에 추임새 연출팀은 서양음악 작곡가로 시작한 한국음악과 불교의 접점에 천착해, 찬불가를 개작해낸 박범훈 前 중앙대총장을 진행자로 캐스팅했다. 지금까지 박 前총장은 5명의 게스트들과 함께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해왔다. 게



박범훈 前총장과 교육문화수석이 진행하는 불교방송 TV 토크쇼 ‘추임새’(연출 김형만, 김경규)가 주목받고 있다. 스트로는 △무대위의 아름다운 이종주 김성녀, 손진책 부부 △부모모은중경과 함께한 무대인생 40년, 국악인 김영인 △사물놀이 를 발명하다, 광대중의 광대 이광수 △대를 있는 보살의 몸짓, 무용가 김백봉 모녀 △불모(佛母) 목공예장인 박찬수 관장 등이 출연했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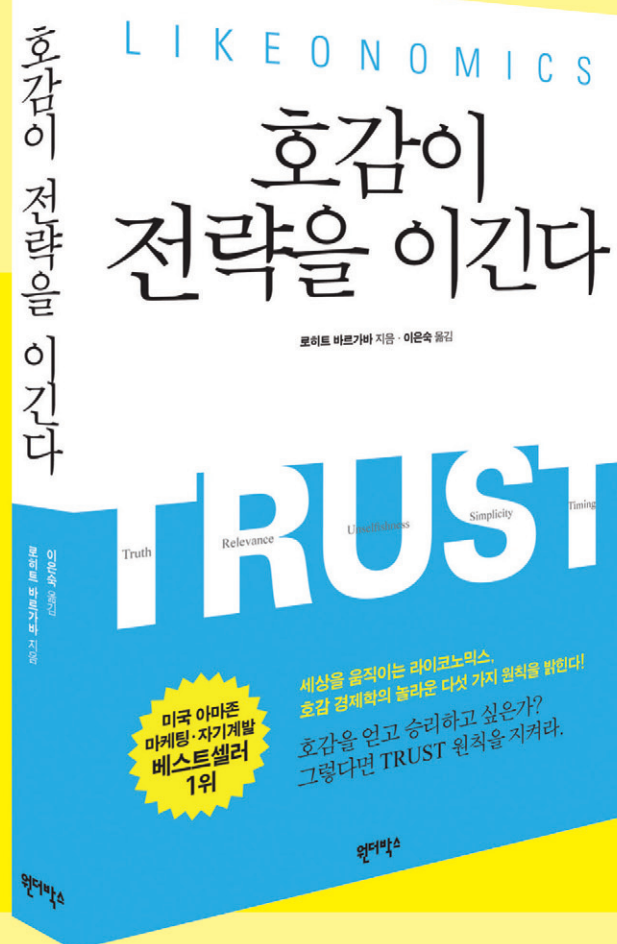
“호감 경제학(likeonomics)은 2012년에 회의실을 뒤흔든 가장 주요한 네 가지 마케팅 용어 중 하나이다.” - <마케팅 위크>

LIKEONOMICS

지금은 ‘호감 경제학’의 시대!

세상을 지배하는 라이코노믹스, 호감 경제학의 놀라운 다섯 가지 원칙이 밝혀진다!

- 조지 부시가 엘 고어를 이기고, 버락 오바마가 롬니를 이겼듯 호감도 높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진짜 이유는?
- 영화광 스포츠 디자이너마리노가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76개 지점 가운데 실적이 173위이던 지점을 1년 만에 1위로 탈바꿈시킨 비결은?
- 한 번에 한 사람, 18분이라는 강연 시간이라는 단순함을 통해 큰 성공을 이룬 테드 쾨퍼런스의 비결은?
- 바닷속에서 수중 각료 회의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 강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물 디브 대통령의 비결은?
-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보내 줄리아 로버츠를 영화 <오션스 일레븐>에 출연시킨 비결은?
- 무명 배우 출신 TV쇼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시청자와 공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미국 아마존 마케팅·자기개발 베스트셀러 1위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한 이 책을 통해 시장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쉬우며,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공을 찾아가길 바란다. -다니엘 핑크(드라이브, 『세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

일에서는 인생에서는 성공에 이르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디크 초프라(『성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영적 법칙』의 저자)

로히트 바르가바 지음 | 이은숙 옮김 | 328면 | 값 15,000원